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봄철 교회당 인근 주변 대청소 실시

각 교구별로 청소 구역 정해 4월 1일부터 5일까지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지역 사회 봉사 기회 갖고
이웃 사랑·섬김 실천하는 교회 모습 보여 주자”

교회는 새봄을 맞으며 오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교회 주변을 대청소하기로 했다. 봉사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하게 되는 이번 대청소는 교회 외곽의 큰 도로(테헤란로, 봉은사로, 언주로, 동호대로)를 한계선으로 그 안쪽의 모든 이면도로와 주택가 부근의 모든 진입로에서 실시하게 된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자기 집의 쓰레기는 잘 관리하면서도 집밖의 쓰레기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택 밀집 지역에는 주변의 진입로들이 무척 지저분해진 경우를 많이 보고 있다.

이번 교회 주변 대청소는 이런 면에서뿐만 아니라 주택가에 자리잡은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생각되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또한 교인들이나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서 충현교회 가는 길은 참으로 깨끗하고 쾌적하다는 느낌을 주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번 교회 주변 대청소는 각 교구별로 할당된 구역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대청소 날짜에 맞추어 각 교구에서 자체 동원계획을 세워 실시하면 된다.

청소에 필요한 청소도구 및 쓰레기 봉투는 봉사위원회에서 준비하여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봉사위원회(미화부장 박상준 장로)로 문의하면 된다.

온 교우들은 다른 일보다 우선으로 생각하여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데 앞장서서 나섬으로 진정으로 이웃에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고난주간 부흥사경회 실시

3월 24일(월) 저녁~26일(수) 저녁까지

강사에 총회장 김준규 목사

교회는 97년도 고난주간을 맞으며 교인들의 영적 각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을 다짐하기 위하여 고난주간에 부흥사경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강사는 현 총회장이며 청주중앙교회 당회장인 김준규 목사(사진)이다.

부흥사경회는 3월 24일 저녁부터 시작하여 26일(수) 저녁까지 진행되는 데 기간 중 매일 새벽, 낮, 저녁 세 차례

모이게 된다.

이처럼 고난주간에 열리는 부흥사경회에 준비된 마음으로 참석한다면 큰 영적 유익이 있을 것이다.



크로마하프대원 모집

크로마하프대원을 모집한다. 본 교회 등록 세례교인으로 크로마하프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김옥순 집사(☎ 548-6916)에게 연락하면 된다.

공동의회 공고

- 일시: 97년 3월 16일 4부예배 후
- 장소: 본당
- 안건: 30대 장로, 11대 집사, 39대 관사 선거
- 참석: 충현교회 세례교인

부활절 음악예배

임마누엘찬양대, 3월 30일 저녁찬양예배시
구노의 '장엄미사' 연주

1997년도 부활절을 맞으며 부활절 음악예배가 드려진다.

이번 음악예배는 임마누엘찬양대(대장 차신득 장로, 지휘 장기범 집사, 오르간 김윤경 집사)가 준비하여 연주하게 된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함께 하기 위해 열리는 부활절 음악예배 이기에 전 성도가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참석하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구원과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임마누엘찬양대는 이 일을 위하여 평일에도 계속 모여 연습을 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부활절 음악예배에서 임마누엘찬양대는 구노의 '장엄미사'를 찬양하게 된다. 곡중 독창은 소프라노 박미애 선생, 테너 지양길 선생, 베이스 최덕식 선생이, 반주는 임마누엘오케스트라가 담당한다.

금주의 교구일꾼 영성훈련

3월 20일(목) 제3교구

동서울노회 제51회 정기노회에 각종 고시신청서를 제출하기 원하는 분은 다음과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① 목사고시 청원(강도사로서 목사고시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 ② 강도사고시 청원 ③ 전도사고시 청원 ④ 신학계속 추천 청원(총신대학 및 총신신대원 재학생) ⑤ 목사후보생고시 청원(총신대학 신학과 입학 지원자, 신학대학원 입시 지원자)

· 제출마감: 3월 26일(수)까지

· 접수 및 문의: 교회 사무국 총무과(☎ 552-8200(402), 563-2339)



'97 충현 실업인 신앙부흥회

실업인전도회에서 주관하여 지난 3월 10일 오후 8

시 갈릴리홀에서 개최되었던 '97 충현 실업인 신앙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마쳐졌다.

회장 임무천 장로의 사회, 전도위원장 강은원 장로의 기도, 강임구 교수의 특송, 호산나찬양대의 찬양, 홍정길 목사의 축도 등으로 진행된 이 부흥회에서 강사 홍정길 목사는 '여호와와 마음에 합한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다. 참석한 회원과 성도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깨닫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계기를 가졌다. 또한 각자의 사업장과 주변 실업인의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힘써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충현강단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환난을 당하는 성도의 자세(2)

(시편 44:9-26)

3. 환난 당한 성도의 형편이 어떠합니까(44:9-16)

이 시편의 저자인 고라 자손은 지난 날에는 조상들과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너무 어려운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1) 이리 때에 먹히는 양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시편 기자가 어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자라났는데 지금은 원수들이 쳐들어 와서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으니 나가서 싸워야 되겠는데 그들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원수에게 붙들렸습니다. 재산을 원수들이 모조리 탈취해 갔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원수들이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기더니 이제는 쳐들어 와서 재산을 탈취해 가고 사람을 죽이는데 마치 악한 짐승이 양을 찢어 먹는 것처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죽이면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나 안타까워 이같이 부르짖습니다.

(2)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원수들에게 조롱과 조소를 당하고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니 열방 모든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저 꼴 좀 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애기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보아 달라고 사정을 고합니다.

세상은 악마가 꼭 차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해도 이유 없이 억울한 핍박을 종종 당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값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생을 할 때에는 죄를 떠나기 위해서 혹은 불의한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면 그 고생은 귀합니다. 죄악을 뉘었다고 해서 같이 죄를 범하던 사람들의 멸시와 조소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고생이 되는 것입니다.

4. 환난 중의 신앙생활이 어떠합니까(44:17-22)

어려운 환난과 핍박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1)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수들에게 붙잡혀 아무리 심한 매를 맞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니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는 줄을 믿었습니다.

(3) 하나님만 따라가는 걸음을 걷습니다
그들은 발걸음을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따라 갑니다. 이리 때에 상처를 입어 몸이 괴롭고 아파도 죽기까지 진리만을 따라갈 것을 결심합니다.

(4)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합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은 중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지 모릅니다.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사랑과 심판의 권능을 나타내 줍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으며 마지막 때 상급으로 심판해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랑할 것은 환난 중에서도 해야 할 마땅한 성도의 생활 태도입니다.

(5)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록 고생을 하나 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절대로 이방신에게 끌리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미신에게 끌려 갑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이방신에게 마음이 끌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서운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이 없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괴로워도 지옥불보다 더 괴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지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자이기 때문에 원수 앞에 쫓겨 가면서도,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식구 중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5. 환난 중의 간구가 어떠합니까(44:23-26)

(1) 즉시 구원해 주옵소서
시편 기자는 어려움을 만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난 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부르짖었습니다.

(2) 버리지 마소서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비록 만난다 해도 어려운 그 일만을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렸던 은혜와 평강을 생각하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축복을 생각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비록 길에 조각같은 죄인이지만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3) 얼굴 빛을 비추소서
"우리는 몸만 죽는 것이 아니고 영혼까지 진토에 넘어진 자처럼 되었사오니 일어나서 얼굴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세상은 악마가 꼭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억울한 핍박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괴로운 곳입니다. 부모의 죄값으로 죄없는 자녀가 고생을 당하고 위정자의 잘못으로 국민이 도탄에 빠지고 지도자가 잘못하므로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억울한 고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일 무서운 것은 자기가 범한 죄값으로 고생하는 것입니다. 고생할 때에는 죄를 떠나기 위해서 불의한 사업을 정리하고 죄를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다가 사람들 앞에 조롱과 멸시를 받는 쪽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선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전도하다가 매를 두들겨 맞는 것은 귀한 고생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요 후손에게 복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후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믿음을 지킬 때에 한 걸음도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당하는 고생이 값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전도를 하다가 받는 핍박이 값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에는 생명의 은혜요 후손에게는 복을 물려주는 일이 됩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할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기 위해서 가정에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할 수 없지요 양보하십시오"하는 사람이 있다면 크게 잘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타협하면 핍박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작은 것이라도 양보하기 시작하면 끝내는 다 양보해야 됩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조그만 것부터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안 믿는 것이 옳습니다. 언제나 편안하리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편안한 때에 핍박이 있어도 바로 믿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고 아울러 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원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믿음으로 복받았던 때를 생각하고 자기들이 어렸을 때에도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려운 사정을 고백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들의 영혼이 천국에 간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비록 만난다 해도 어려운 그 일만을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렸던 은혜와 평강을 생각하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축복을 생각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괴로운들 지옥불만큼이야 어렵겠습니까. 또 세상이 아무리 좋으면 천국만큼이야 좋겠습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반드시 기억하며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담대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

◀ 칼럼 ▶



호세아의 경고

장 우 천

(목사, 예신부, 4교구 지도)

서론

우리는 지금 성경 어디쯤 가고 있을까? 바다를 향해하는 선장이 자신이 있는 위치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조난의 위기이다. 가느다란 별빛을 보고서라도 자신이 탄 배의 위치를 파악하고 방향을 지정하여 항해할 책임이 선장에게 있다. 성도들의 영적 항해를 책임져야 할 주의 종들은 그래서 밤 늦게까지 서재의 불을 밝히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항해의 위치와 방향을 잡기 위해서 고뇌한다.

1. 지금 우리는

우리 가운데 조소와 냉소, 탄식의 소리가 입에서 입으로 번져가고 있다. 희망찬 출발은 단지 과거의 추억 속으로 묻혀져 버리고 패배감과 불안감이 우리 모두를 삼켜버린 것 같다. 이 패배감을 안고서는 우리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연 우리들은 할 수 있을까? 이 나라가 다시 지도자를 중심으로 굳게 뭉치고, 경제적으로 활기를 찾고, 통일 한국을 향하여 계속하여 전진할 수 있을까? 비관론은 부정적 사고 방식의 해독 때문에 금물이다. 그렇다고 낙관

론도 문제 해결에는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 진단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진단이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 교인 자녀 중 하나가 큰 일날 뻔하였다. 배가 아픈 것을 열흘 이상 참아 왔다. 학교 공부가 재미있고 학교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어서 부모님이 병원에 가보라는 말씀도 듣지 않았다. 혹시 맹장일지도 모른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더욱 겁이 나서 진통제까지 먹었다. 얼굴에서 식은 땀이 나고 열이 올라가기 시작하여 잠깐 놀란 부모님이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의 위험이 있게 되었다. 긴급 수술에 들어가 위험을 간신히 넘겼다. 참는 것 가지고는 안된다. 잘못된 자기 판단은 더욱 안된다. 진통제를 써도 안되고 잘못된 진단을 내려도 안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하기도 부끄러운 고멜 병을 갖고 있다. 그 병은 국가, 교회, 가정, 개인을 통하여 거의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은 국가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가정은 물론 자신들의

교회마저 그 병에 걸려 있음도 알아야 한다. 우리 자신, 가정, 교회는 깨끗한데 나라만 이 병에 걸려 있을 수가 없다. 나라는 개인들의 집합체일 뿐이지 개인들과 전혀 다른 제3의 존재가 결코 아니다. 이 점을 뼈아프게 교훈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음란한 여인과 함께 부부로 사는 남편의 고통을 경험하도록 하셨다. 그 여자는 지식도 없고, 교만은 극에 달하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속의 죄에 파묻혀 있고, 그 마음과 행동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였고, 세상 보이는 것들을 신으로 아는 우상과 자만에서 헤어 나오지를 못하고 있었다.

3. 처방

이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인가? 고칠 수는 있다. 그러나 매우 어려운 병이다. 병은 오래 되었고 넓게 퍼져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환자 자신이 고멜 병에 걸렸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멜 병에 걸렸음을 인정하기에는 자신의 얼굴의 겉질이 너무 두껍고 자신이 잃을 이익이라는 것이 너무 크게 보여진다. 몇 푼 안되는 진통제면

되는데 괜히 호들갑을 떨고 있는 의사 같지 않은 의사들이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의사는 오늘 밤에도 탄식한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인데, 살릴 수 있는 때인데, 이 때를 놓치면 안되는데.

의사같지 않은 의사가 하도 이야기하니 환자가 큰 선심을 쓴다. 그래 내가 병에 걸렸다 하자. 네 까짓 것이 무엇인데 나를 고쳐? 이야기할지 모른다. 환자는 의사가 고치는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려준다면 고치는 분은 여호와시다(호 11:3). 의사같지 않은 의사는 다만 말씀을 들고 환자를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시종일 뿐이다(호 14:2). 의사가 당신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은 고침받기 위하여 의사의 말을 엄히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만 한다(호 14:1). 그리하면 반드시 저주를 고치고 전의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하시고,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하시고, 푸른 잣나무같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호 14장). 하나님의 보충이시다.

결론

지금으로써는 무어라 말할 수 없다. 이 환자가 낮게 될는지, 아니면 이 병으로 죽게 될는지. 이것이 누가 무엇이라 하든 의사의 양심이며 의사의 한계이다. 그리고 역사의 증언이다(호 14:9).

그리고 나 자신 이 병의 한 가운데 있음을 통렬히 알고 있기에 주의 좋은 새벽이나 밤이나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적신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돌이키게 하옵소서. 아멘.

- 교정전도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

복음을 전해달라는
구원의 손짓을 봅니다

이 정 우

(장로, 교정전도회장)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생명력이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두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 지역에서 지위고하와 남녀노소, 심지어는 국경을 초월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과 비전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회에 비전과 기쁨을 주지 못하면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것이며, 사회에서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여 무슨 구원의 가능성이나 무슨 착함과 선행이 있어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열방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잘나고 똑똑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원의 자격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 속에서 큰 과

오를 범하였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의 과오를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지 않는가, 깊이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나의 지나친 편견으로 복음 전도의 대상자를 임의로 구분하고 있다면 큰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사기꾼들과 달리 복음 전도의 대상자를 사회적 지위가 있고 덕망이 있는 자를 찾아가지 않으시고 사회에서 소외감을 받는 장애인, 세리, 가난한 자, 소외계층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의 은총을 주기 위해 왔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날 전도의 황금어장이 어디입니까? 복음 전도의 전략적 관점으로 깊

이 살펴보면 군대요, 학원이요, 그 다음은 교도소, 소년원 전도지역입니다. 이런 곳은 현재 복음 전도의 길이 활짝 열려져 있으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정 전도를 하다 보니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며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달라는 마케도나의 환상이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 달라는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면 안됩니다.

오늘날 교도소, 소년원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은 교회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 사역에 교회가 앞장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회에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새사람을 만들어 낸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어두운 곳을 사랑의 빛으로, 절망을 소망과 기쁨의 장으로,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새 소망을 심어주는 아름다운 교회로, 예수의 제자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명을 교회가 저버리고 사회의 요청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저버리면 얼마 못가서 사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힐 당하며,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사회의 아편으로 질척과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도소, 소년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

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하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사명을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며 물질로 섬길 때 성령의 권능과 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교정전도회는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모임입니다. 교정전도회에서 하는 사업은 교도소, 구치소 및 소년원 기타 재소자와 출소자에 대한 복음 전도와 구제 및 직장 소개,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세워진 전도회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매주 천 교도소, 소년원 집회 인도 및 성경공부, 매달 한 번씩 천안 교도소, 소년원 집회 인도, 장호원 군교도소 집회 인도, 청송 교도소 집회 인도, 아들의 집 후원 등 기타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소자에 대한 구제 및 직장 소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재소자 및 출소자의 건강과 법률에 대한 상담을 담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헌의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달라는 마케도나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몸으로 섬길 수 있으며, 시간이 없으면 물질로, 물질이 없으면 기도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토막소식

▶ 중등3부에서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 사도행전을 매일 쓰도록 지도하고 있다.

▶ 청년1부에서는 오는 3월 23일 강남터미널로 나가 전도훈련을 실시한다.

▶ 장년3부는 3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97년도 1차 부흥기간으로 정하고 회원 자신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며 회원 배가를 위해 전도에 힘쓰고 있다.

▶ 새가정부에서는 3월 16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201호에서 특강을 실시한다. 강사는 최영찬 목사이고 주제는 '천주교와 기독교 교과 이해'이다.

▶ 가브리엘찬양대에서는 오는 4월 25일 성경암송대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암송 범위를 요한복음 14, 15, 16장으로 정하여 대원들이 틈틈이 준비하도록 했다.

▶ 선교훈련원에서는 오는 3월 22일까지 수강 신청을 받는다.

중현전도대 기도 모임

- 시간 : 3월 19일부터
- 매주 수요일 2부에 배 후
- 장소 : 교육관 109호

선교위원회 실행위원 교육

- 시간 : 3월 16일부터
- 매주 주일찬양예배 후
- 장소 : 선교관 406호

하루하루를 빠르게 변화가는 시간 속에 교회를 오가는 초·중·고부 친구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시고 제34회 겨울성경학교를 2월 24일 시작하여 25일 아무 사고없이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나래에 품어 보호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쟁그렁 얼음 깨어지는 추운 겨울 하늘 사이로 주님의 훈훈한 입김 따스한 봄을 부르고 가물었던 대지 위에 각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까지 축축히 내려 주시고 뽕안 솜털을 피우며 주님 찾아 오시는 길목에 아침 이슬처럼 초롱초롱한 눈길마다 웃음 머금고 많은 초·중·고부 친구들이 노루 사슴같이 뛰어 달려 나왔습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 주제는 '예수님을 잘 아는 어린이'였습니다.

교사와 380명의 초·중·고부 친구들이 합심하여 기도로 시작하였고 은혜 가운데 마무리를 잘하였습니다.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농철새라 조용히 듣고 가슴팍에 새기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머리숙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97년도 초·중·고부에서는 살아 숨쉬는 말씀을 전하려고 모두 애쓰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분반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분반공부 성경본문을 시청각교재를 통하여 짧게나마 전하였습니다. 이미 설교를 통하여 같은 주제로 마음이 열린 어린이에게 2000년 전의 소리를 듣는 듯한 소리 성경, 성경만을 그대로 재연하는 VTR, 인형극, 단막극 등은 바로 이

겨울성경학교를 마치고

예수님을 잘 아는 어린이

김운섭
(집사, 초·중·고부 교사)

어지는 분반공부의 효과를 크게 증대하였으며, 믿음과 재미를 한꺼번에 줄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초·중·고부에는 다재다능하신 교사님들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봄을 부르는 지휘자, 손가락으로 얼음 깨듯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반주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명가수, 천사가 부러워하는 부용수, 주어진 백역에 몸과 영혼으로 예수님 시대를 연극하는 배우와 탈렌트도 계시고, 눈감고 들으면 2000년 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우들도 계시니다. 피아노 세상 사람들과 이분들은 다르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귀히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입니다.

시청각 교육시간에는 까만 밤 하늘 별처럼 반짝이는 눈빛, 당나귀처럼 똥똥 새운 귀, 바위같이 굳게 다문 입, 철부지 로만 알았던 초·중·고부 친구들을 보고 다시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을 발표하는 꼬마 세미나에 출전한 15여명의 친구들이 앞에 나가 "예수님은 신이실까? 사람이실까?", "나는 뉴에이지가 무엇인 줄 알아요?" 등을 통해 여러 친구들 앞에서 발을 하나 틀리지 않고 또박또박 발표할 때 전도사님, 장로님 여러 선

생님들은 듣고 깜짝 놀라고 눈시울까지 적셨답니다.

제아무리 힘이 센 사탄이 우리 친구들을 꺾어도 넘어가지 않는 믿음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되어 있는 줄은 미처 알지 못하였고, 어른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어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사의 사명감으로 사랑 속에 양육하고 말씀위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마음깊이 다짐하며 새겨들었다.

믿음의 어린이로 예수님 앞에 한 점 부끄럼이 없게 신앙생활 잘하며 천국 확장과 교회성장과 초·중·고부 발전을 위해 초·중·고부 친구들 파이팅!

선수의 장로님과 전도사님과 여러 선생님들과 모든 초·중·고부 어린이가 한 마음이 되어 눈물어린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늘보좌에 상달하게 하시고 초·중·고부의 부흥발전과 소원성취 이루어 주시길 믿습니다.

세상을 저버리고, 모든 유혹을 떨쳐 버리고 "오라, 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찾아온 초·중·고부의 맥박이 더 강하게 힘차게 뛰며, 그들의 발자국에도 높이신 하나님 축복하시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연단하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이 작은 영혼들에게 21세기를 향해 내일을 바라보며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짊어지고 이 땅위에 마귀 우상들을 떨쳐버리며 씩씩하며 용감하게 자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착한 초·중·고부 친구로 어둠 밝히는 큰 햇불이 되어 영원히 타오를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수리남 안석렬 선교사 1



곳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지난 연말연시는 감사의 제목이 다른 때보다 더 많았습니다. 인디언 선교를 위해 마따(Matta)의 문을 열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연말연시를 통해서도 큰 위로와 함께, 정말 자신의 임마누엘됨을 보여 주셨습니다.

인디언 아이들의 결선

인디언 마을에서 시작한 주일학교에 매주 평균 35명 정도의 아이들이 출석하고 있는데 1월 12일 주일에는 50명이나 왔습니다. 또 성탄예배 후부터는 매주 1-2명의 어른들이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시작할 장년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며, 또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여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리남의 어린이날은 12월 5일로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을 준다고 믿고 있는데, 마따의 어른들이 12월 8일 주일, 그것도 예배시간과 겹쳐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13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린이행사보다는 예배를 선택하여 교회로 나왔습니다. 또 그 날 출석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수님 영접의 시간을 가져 7명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어려서만 행하나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예수님까지 영접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아

니 모든 인디언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탄 행사

지난 성탄절은 정말 뜻깊은 성탄절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한 마따의 주일학교도 성탄 행사를 가지기 위해 헤이어스 플레이트교회 성도들을 마따로 데리고 가서 함께 성탄 행사를 가졌습니다. 현지 인교회와 마따 주일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모두 103명이 참석하여 예배와 성탄 행사를 가졌습니다. 성탄성구암송, 성탄 찬양을 연합해서 실시하고, 또 헤이어스 플레이트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연극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성탄예배

25일 아침에는 먼저 마따로 다시 가서 인디언 주일학교 학생들과 성탄예배를 드리고, 성탄 선물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약 1달러 하는 크레용을, 유치부 학생들에게는 5개자 색의 찰흙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히 마따의 학생들은 크레용이 없었기에 큰 선물이었습니 다. 오후에는 헤이어스플레이트교회에서 장년과 주일학교 학생들이 함께 모여 성탄축하예배를 드리고, 2부로는 전날 성

탄축하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중·고·고부의 연극을 공연했고, 3부로는 장년교인들이 준비해 온 음식을 나누며, 성탄의 은혜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교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교회에 음식을 준비하는 재료를 구입하여 주기도 했는데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며 그들이 많이 성장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숫적으로나 실질적 생활면에서 성장이 늦어 안타깝습니다. 숫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 차량 TOYOTA HI-LUX

작년 여름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중현교회 중·고·고부 선배이신 김경생 장로님을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주간중현을 통해 선교편지를 읽고 온 가족이 가정예배 때마다 차량구입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지난 10-11월에는 중현교회 고·중·고부 제자 중 최희연 선생(독일과 미국에서 피아노를 전공)이 자신이 출석하는 대학교회가 조금이라도 차량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앞으로 대학교회에서 남미 선교라는 항목을 만들어 선교를 돕기 원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달았습니다. 또 저희를 파송한 중현교회에서도 선교 차량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연락을 받았으며 또 여러분이 선교 차량과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수리남을 사랑하시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월달엔 한 가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디언 선교를 위한 차량구입비를 이미 송금했다고 말입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특별하였기에 무

조건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를 뽑아 26일 주일, 마따로 첫 출동을 했습니다. 정글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차체도 높고, 4륜구동인 이 차량을 통해 마따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리남 선교와 차량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구역과 여전도회를 조직

현지인교회 장년들을 1월 10일, 저희 집으로 초대하여 96년 회계보고와 함께 구역을 3개로 나누어 조직하고 구역장과 권찰을 스스로 뽑게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동네라서 조금이라도 생활이 나아지면 좀더 나은 동네로 떠나기에 유동도 많은데 책임을 맡기니 아침 8시반에 드리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여전도회도 만들어 새례교인을 중심으로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을 통해 전도하고 구제하는 사업을 감당하려 합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이 창대하는 축복을 저희 교회가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귀한 일꾼이 되어 능력있고, 책임있게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 성탄절을 맞아 학생들이 연극을 하였다.

